

## 아동 및 청소년의 ADHD 약물 순응도에 미치는 요인<sup>3)</sup>

### 1. 연구배경

- 주의력 결핍/과잉 행동 장애(Attention-deficit/hyperactivity disorder, ADHD)는 정신과 외래 환자 중 가장 흔한 아동기 장애임
- 지속적인 ADHD 약물 치료는 학업결과 향상과 정신병 동반질환, 행동문제 장애를 감소시킴
  - ▶ ADHD 아동 및 청소년의 장기 치료를 위해 조기 발견과 처방된 약물에 대한 순응도 향상이 중요함
  - ▶ 반면에, 낮은 약물 순응도는 치료결과 12개월 치료 이후 최적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것으로 보고됨
- 본 연구에서 ADHD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약물의 최초 리필시점과 치료약물 순응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함

### 2. 연구방법

- '07~'11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(6~18세)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설계함
  - ▶ 연구대상은 '08~'11년 기간 동안 ADHD 처방전이 2건 이상인 어린이를 선정함
- 약물순응도는 약물 보유율(Medication possession ratio, MPR)로 측정하였고, 치료지속성은 30일간의 끊김이 없는 치료 일수로 산출함. 이들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



### 3. 연구결과

-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6~18세 연령대에서 ADHD 진단받은 어린이가 처방약을 리필 받은 경우는 69,631명임 (4년간 누적 발생률은 0.9%임)
  - ▶ 평균연령은 10.3세이고, 남자비율이 77.4%, 건강보험 가입자가 93.3%, 도시지역 거주자가 64.1%, 민간의원 이용자가 73.1% 임
- 높은 약물 순응도(MPR이 80%이상)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약물 치료유형(아토목세틴), 정신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처방, 동반질환 보유, 민간의원 이용 등이 있음
- ADHD 치료 순응도 및 지속성 향상을 위한 목표 관리에는 치료패턴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함
  - ▶ 본 연구의 영향 요인 외에 중증도, 가족력, 비용, 합병증 유형, 패턴 전환 등 다양한 요인들의 연관성 분석이 요구됨

[표 1] 높은 약물 순응도(MPR이 80%이상)에 대한 오즈비와 95% 신뢰구간

	MPR 80%	
	OR	95% CI
<b>Age (yr)</b>		
6	1.073	0.994-1.158
7~9	0.988	0.925-1.054
10~12	0.909	0.85-0.972
13~15	0.844	0.789-0.903
16~18	Ref	Ref
<b>Sex</b>		
Girl(Ref=boy)	1.03	0.991-1.07
<b>Insurance</b>		
NHI(Ref=medical aid)	1.05	0.985-1.119
<b>Region</b>		
Rural(Ref=urban)	0.97	0.94-1.001
<b>Specialty</b>		
Psychiatrist	1.356	1.198-1.534
Pediatrician	1.451	1.223-1.708
Others	Ref	Ref

Hospital level		
General	Ref	Ref
Private	1.57	1.514-1.629
Comorbidity		
Yes(Ref=no)	1.301	1.259-1.346
Medication type		
IR-MPH	0.843	0.772-0.921
ER-MPH	1.275	1.171-1.389
OROS-MPH	1.273	1.169-1.386
Atomoxetine	1.771	1.593-1.97
All combination	Ref	Ref

MPR: medication possession ratio, OR: odds ratio, Ref: reference value, CI: confidence interval, IR-MPH: immediate release methylphenidate, ER-MPH: extended release methylphenidate, OROS-MPH: osmotic-controlled release oral delivery system methylphenidate

3) Bhang et al., Factors that affect the adherence to ADHD medications during a treatment continuation period in children and adolescents: A Nationwide retrospective cohort study using korean health insurance data from 2007-2011. *Psychiatry Investig* 2017;14(2):158-165